

2021 새해 새 설계

황숙주 순창군수

“인구 4만·관광객 500만·예산 5000억 향해 전진”



“순창군의 3대 비전인 인구 4만명, 관광객 500만명, 예산 500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14일 “지난해 사상 유례 없던 코로나19와 여름철 섬진강 댐 방류 사태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예산 확보와 투자선도지구 선정, 체계산 출렁다리 개통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실제 지난해 3월 개통한 체계산 출렁다리는 코로나19로 개장과 휴장을 반복했음에도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강천산을 이을 순창군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떠올랐다. 발효산업 분야의 메카가 될 투자선도지구에도 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순창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황 군수는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이은 발효 분야를 모티브로 산업과 관광을 한 곳에 집약시키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꼽았다.

발효 산업·관광지 조성 박차

강천산 인근 수체협센터 개장

364억 들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는 오는 2023년까지 1500억원 이상을 투입, ‘순창 전통고추장마을’ 인근에 연구센터와 관광 시설, 산업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월드 푸드 사이언스관’을 비롯해 야외공연장이 완공됐으며 ‘발효미생물 산업화연구센터’는 올해 상반기 설비가 들어오면 본격 가동된다. 세대 통합형 ‘실내 놀이문화체육센터’, ‘미생물 뮤지엄’, ‘잡살이 발효마을’ 등도 내년이면 시설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관광객 500만명 돌파도 핵심 사업이다. 강천산 인근 ‘수(水) 체험센터’를 개장한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강천산 음용온천수를 활용

2021년 주요 사업

- ▲투자선도지구 성공적 추진
- ▲실랜드 운영 활성화
- ▲강천산 수체협센터 개장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해 치유누리실, 테라피실, 야외족욕장 등이 들어선다.

각종 업무와 일상에서 지친 도시민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물 좋기로 소문난 순창에 많은 도시민들이 머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근에 관광호텔이 지어지면 체류형 관광객 확대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주차 공간이 없어 강천산 진입이 어려웠지만 도로길을 만들어 읍내에 차를 주차하고도 걸어갈 수 있게

배려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도 대표적 사업이다. 문화가 숨 쉬는 고장, 문화 융성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순창읍 순화리 일원에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생활SOC 복합 시설을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여토지 매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황 군수는 “그동안 변변한 공연장이 없어 대규모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없었다”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실랜드 운영 활성화, 농촌협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시설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사업들을 부서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도시발전 걸림돌”...익산시, KTX익산역 차량기지 이전 추진

면적 7만3000㎡ 폭 100m 규모

도시 양분하고 환승센터 구축 저해

익산시가 KTX익산역 안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한다. 차량기지가 도시 발전과 KTX익산역의 성장에 걸리적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증장기계획 용역에 KTX 익산역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익산 차량기지는 객차와 기관차를 정비하는 곳으로, KTX익산역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인 7만 3000여㎡를 차지한다.

KTX익산역이 호남의 관문 역으로 KTX 호남선,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이다 보니 차량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상황이다. 차량기지는 폭이 100m 가량돼 도시를 동서로 양분,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향후 국가철도운영계획에 따라 고속·셔틀 열차 간 연계 환승이 진행되면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반열차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해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하게 돼 이전이 불가피하다.

익산시는 차량기지를 타지역 또는 도심 외곽으로 옮기고 이 부지를 개발하면 KTX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만금과 한서해권을 아우르는 물류 및 환승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기차 이용객이 편리하게 버스타 택시 등으로 갈아타는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KTX 익산역과 연결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발전과 KTX익산역의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시장은 “차량기지 이전은 KTX익산역이 세만금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만족도 84.1%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이용한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2060명 중 84.1%인 1734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조사분야는 ‘배달’과 관련한 ▲주문방식 ▲결제방식 ▲주문회수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등 4개

항목, ‘더불어 앱’과 관련한 ▲만족도(3개항) ▲추가 카테고리 ▲홍보 개선사항 ▲개선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주 연령대는 30대(41.2%), 40대(32.8%)로 나타났다. 만족도 사유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이용 가능’(60.6%), ‘군산시 자체 개발앱’(32.2%), ‘소상공인 지원정책 동장’(24.6%) 등의 순이었다.

또 ‘배달의 명수’ 홍보를 위해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 추진이 필요하다(88%)는 의견이 높았으며, 음식점 카테고리의 세분화 등의 요구도 나왔다.

배달 추가 업종 조사에는 슈퍼·편의점(49.6%), 로컬푸드(47.4%)인 생활잡화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세탁(26.5%), 도서·문구(17.1%), 정가배송서비스(16.8%)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배달이 요구됐다.

‘배달의 명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만 원 환급받는 외식활성화 캠페인에 참여 중이고, 올해도 소비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도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 옛성에서 ‘백제 행정 편제’ 목제 유물 발굴

백제 통치체계 ‘상부상향’ 새겨져

정읍의 한 옛성에서 백제시대 행정 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제 유물이 발굴됐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사적 제494호인 정읍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에서 ‘상부상향(上上上)’ 글귀가 새겨진 목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사부리성은 정읍시 고부면 성황산(해발 132m) 정상부 두 봉우리를 감싼 이르면 데미식 산성으로 백제시대에 처음 쌓아 통일신라 때 개축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 영조 41년(1765) 읍치(邑治)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까지 줄곧 사용됐다. 조선 전기까지는 석성(石城)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토성(土城)으로 개축됐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과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이곳에 대한 8차 정밀발굴조사를 마쳤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길이 144~148cm, 두께 3.3~3.6cm 크기의 목제들이 발견됐는데 이중 하나에는 ‘상부상향’이 새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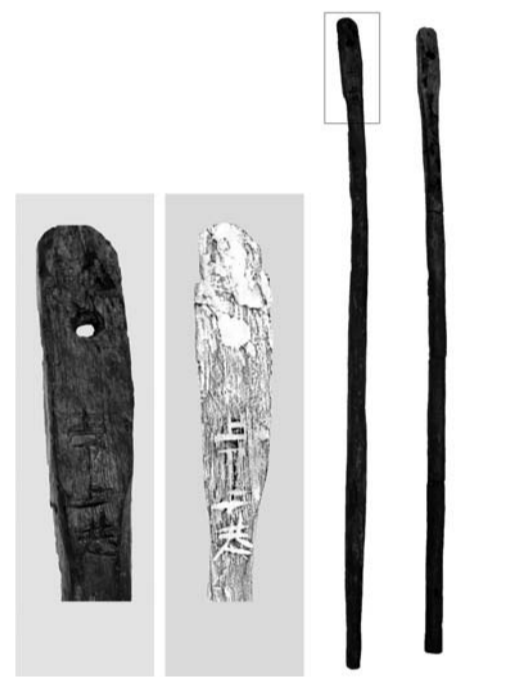
상부와 상향은 백제의 수도를 편제한 오부(五部)·오향(五巷)의 하나로 알려졌다.

백제는 수도 사비를 오부오향, 지역을 오방성(五方城)으로 나눠 통치했다. 충청도에 동방, 서방, 북방을 뒀고 전북도에는 중방성을 뒀다.

정읍시 관계자는 “‘상부상향’이라는 명칭이 적힌 유물은 충남 부여와 익산 등 백제 고도에서 주로 출토돼 정읍이 백제의 중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목제는 원형 유지를 위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시 고부면 성황산 정상부의 고사부리성에서 백제시대 행정 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제 유물이 발굴됐다. <정읍시 제공>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